

KOSPI와 정반대의 투자심리

금융위기, Pandemic 수준으로 하락한 ADR



KOSPI와 정반대의 투자심리

금융위기, Pandemic 수준으로 하락한 ADR

KOSPI 상승 흐름에서도 반도체로의 쏠림 현상이 극심한 상황이다. 5/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이후에 반도체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 강화된 상황이다. 5/27일부터 KOSPI, KOSDAQ 시장 내에서 주가가 상승한 종목은 105개에(4.4%) 불과한 반면에 주가가 하락한 종목은 2,268개에(95.5%) 달한다. 주가가 하락한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은 -26.9%에 달하는데, 이로 인해 담보부족이 크게 증가했다. KOSPI, KOSDAQ ADR은 금융위기, Pandemic 수준으로 하락해 있는데, 이는 하락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의미다.

한국시장에서 반도체로의 쏠림 현상이 진행되는 이유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로 인한 수급만의 문제는 아니다. 2Q26 실적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섹터들의 실적전망이 정체돼 있는 반면에 반도체의 실적전망은 오히려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전쟁이 발발한 2월말을 기준으로 한국 반도체지수가 92.1% 상승한 반면에 반도체를 제외한 지수는 -0.02%로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기간 중에 KOSPI에서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은 62.3%로 20.7%p 증가했다.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 증가는 한국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귀결되고 있다.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동하면서 한국시장이 마치 개별종목처럼 급등락하면서 VKOSPI가 금융위기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은 주식시장의 리스크 상상을 의미한다. 반도체와 달리 다른 섹터들은 일제히 주가가 하락하면서 시가총액이 1Q26 기준으로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다 저평가되기 시작한 종목들의 속출하고 있다(127개 종목). 시가총액이 보유 현금보다 낮아진 상황에서 꾸준하게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甲論乙駁

2026/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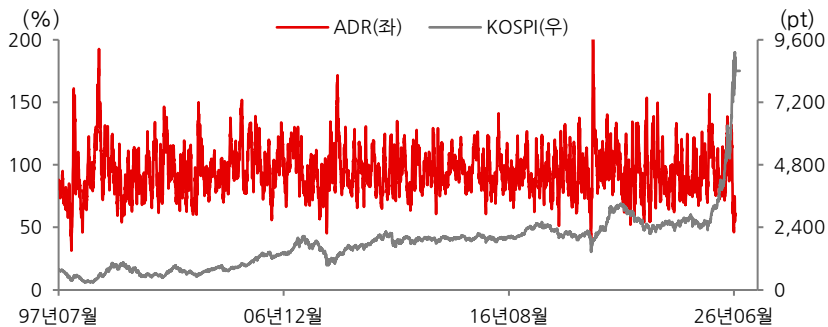
Sentiment

I. KOSPI와 정반대의 투자심리

주가 양극화로 인한 풍요 속의 빈곤

5/27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도입된 이후에 주가 차별화가 극심하게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개선으로 인해 레버리지 상품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반도체 이외의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들었다. 5/27일부터 KOSPI, KOSDAQ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한 종목은 105개에(4.4%) 불과한 반면에 주가가 하락한 종목은 2,268개에(95.5%)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보합은 1종목).

Fig. 1: 금융위기, Pandemic 수준으로 추락한 AD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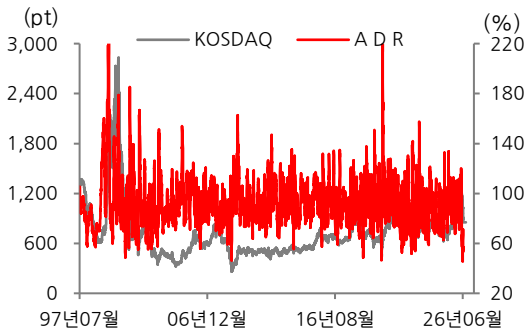
자료: KRX, BNK투자증권

주: ADR은 최근 20일간 상승/하락 종목수의 비율

반도체 쏠림과 다른 업종들의 소외로 인해 KOSPI, KOSDAQ ADR은(20일간 상승/하락 종목 수의 비율) 금융위기나 Pandemic 수준으로 하락했다. KOSDAQ 시장과 달리 KOSPI는 줄곧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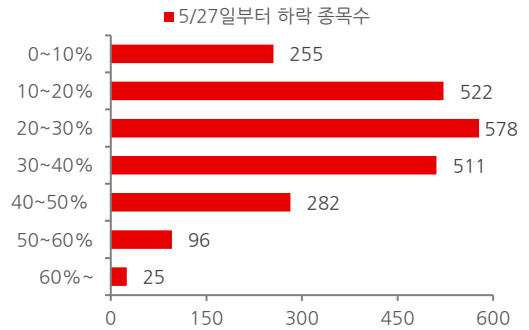
그림3은 5/27일부터 KOSPI, KOSDAQ 시장에서 주가하락율을 기준으로 종목 수를 나타낸 것이다. 주가가 상승한 종목은 105개에 불과한 반면에 주가가 하락한 종목들은(2,268개) 대부분 10~40% 하락율을 기록 중이다. 주가하락 종목들의 평균 주가수익률은 -2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Fig. 2: KOSDAQ ADR도 급락한 상황



자료: KRX, BN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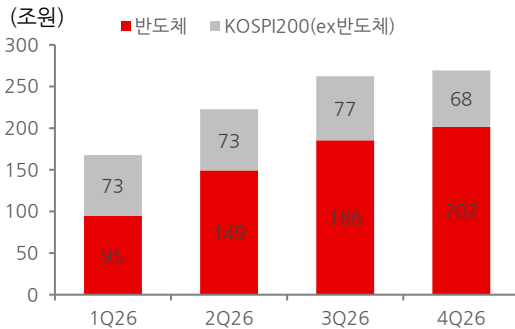
Fig. 3: 단일종목 레버리지 이후의 하락 종목 수



자료: KRX, BNK투자증권

반도체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실적개선이 자리하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1Q26 95조원으로 급증한 상태에서 2Q26에는 149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후에도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에 반도체를 제외한 KOSPI200 영업이익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SK스퀘어를 제외할 경우 ex 반도체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Fig. 4: 반도체 중심의 실적개선 국면



자료: Quantwise, BNK투자증권

Fig. 5: 이란전쟁을 계기로 반도체만 상승



자료: Quantwise, BNK투자증권

2Q26 KOSPI200 영업이익은 222.7조원으로 전분기 167.9조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개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1Q26 실적발표 이후부터 반도체로의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이란전쟁이 발발한 2월말을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지수가 92.1% 상승한 반면에 ex반도체지수는 -0.02%로 제자리 걸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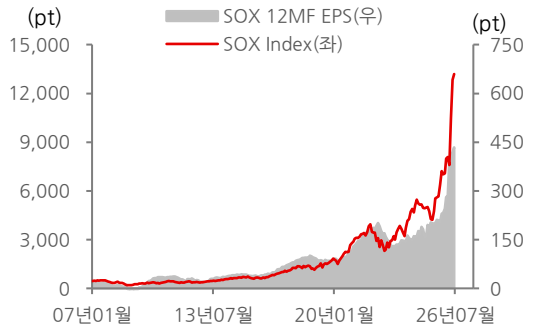
3월부터 반도체지수만이 상승하면서 KOSPI내에서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은 62.3%로 상승했다. 2월말 기준으로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은 41.6%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었는데, 현재는 20.7%p가 더 증가한 상황이다.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 증가로 인해 KOSPI의 변동성이 급용위기를 뛰어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도체 주가 급등락이 곧바로 KOSPI 변동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Fig. 6: 한국 반도체 시가총액비중 62.3%



자료: Quantwise, BNK투자증권

Fig. 7: 미국 반도체 12MF PER 30.4x



자료: Bloomberg, BNK투자증권

이런 까닭에 KOSPI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내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KOSPI가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사실이다. 다만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가파른 주가상승으로 인해 12MF PER이 30.4x까지 상승한 점은(역사적 평균 20.4x보다 높은 수준) 한국 반도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도체로의 쏠림으로 인해 주가가 급락한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현상은 fundamentals보다는 수급악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8은 현재 시가총액이 1Q26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금액보다 낮은 기업들을 나타낸 것이다. 지난주 기준으로 KOSPI, KOSDAQ 시장 내에서 1Q26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다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은 127개로 한달 사이에 크게 증가했다.

127개 기업 중에서 2025년 지배주주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기업 수는 5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 기업은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아래 표는 2025년 PER이 5.0x 이하에서 형성되면서 시가총액이 1Q26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보다 저평가된 기업들이다. 기업이 보유한 현금보다 시가총액이 낮은 것은 일시적인 주가급락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Fig. 8: 보유현금보다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이 증가

코드	종목	시가총액(십억원)	현금/현금성자산	지배주주순이익	2025년 PER
A031820	아이티센씨티에스	55.8	110.9	52.8	1.1
A052790	엑토즈소프트	43.8	103.3	31.7	1.4
A019540	일지테크	72.3	116.1	45.7	1.6
A013580	계룡건설	166.2	346.6	100.0	1.7
A136490	선진	204.5	210.0	118.9	1.7
A088130	동아엘텍	85.2	179.9	49.2	1.7
A004960	한신공영	107.0	170.0	59.9	1.8
A065690	파커스	12.8	14.3	6.7	1.9
A016670	디모아	24.0	49.3	11.1	2.2
A033530	SJG세종	150.2	195.2	68.7	2.2
A198080	캐프	44.6	68.1	19.5	2.3
A080470	성창오토텍	19.9	28.5	8.5	2.3
A021320	KCC건설	107.6	225.1	45.4	2.4
A010280	아이티센엔텍	54.9	61.3	23.0	2.4
A011370	서한	70.8	168.4	28.9	2.4
A023590	다우기술	1,463.1	2,667.9	505.2	2.9
A032190	다우데이터	642.7	2,803.2	218.8	2.9
A069510	에스텍	123.6	132.0	41.6	3.0
A011760	현대코퍼레이션	283.8	327.4	86.8	3.3
A196700	웹스	13.8	15.6	4.1	3.4
A317400	자이에스앤디	130.3	203.3	35.6	3.7
A001770	SHD	7.4	11.4	2.0	3.7
A001390	KG케미칼	261.5	576.1	69.7	3.8
A006980	우성	48.8	48.9	12.9	3.8
A123700	SJM	46.9	81.5	12.1	3.9
A417180	핑거스토리	13.8	34.9	3.5	3.9
A002990	금호건설	252.9	275.6	63.9	4.0
A023810	인팩	48.5	54.3	12.0	4.1
A013310	아진산업	99.0	164.1	23.2	4.3
A267980	매일유업	242.6	285.4	56.1	4.3
A080010	이상네트웍스	65.4	73.3	14.6	4.5
A053700	삼보모터스	97.5	178.3	20.3	4.8

자료: Quantwise, BNK투자증권

주1: 지배주주순이익은 2025년 기준, 현금/현금성자산은 1Q26 기준

주2: 해당종목은 당사 애널리스트 투자 의견과 무관합니다. 단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 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으로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네이버에서 제공한 나눔글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BNK 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 1577-2601 www.bnkfn.co.kr

<본사/영업부>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1(부전동) 부산은행 부전동별관 3층, 4층 / [본사] T 051-669-8000 / F 051-669-8009
[영업부] T 051-669-8080 / F 051-669-8099

<서울영업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4 (여의도동) BNK금융타워 6층 / T 02-3215-1500 / F 02-786-2998

<경남영업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BNK경남은행본점 1층 / T 055-290-7100 / F 055-290-7199

<울산영업부>

울산시 남구 중앙로 202 BNK경남은행 울산영업부 1층 / T 052-210-6900 / F 052-271-6111

BNK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 피 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신용정보 BNK 시 스 템 BNK 벤처투자 BNK 씬농구단